

연중 제 24 주일

기도서 435 면

제 1 독서: 이 사 50, 5-9a
 제 2 독서: 야 고 2, 14-18
 복 음: 마 르 8, 27-35

숲 정 이

발행 원 인: 천주교 전주교구 사 목 관 리 국
 편집 실: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천주교구청
 ☎ 5098 3201

□ 강 론



피꼬리 신앙?

김 순 태 신부

나의 사계생활도 벌써 5년. 3년이면 밀천이 드러나고 그때부터 개미 쾃바퀴라는 어느 신부의 얘기가 생각난다. 천당에 가보던 신부는 입술만, 수녀는 귀만 와있다는 우스운 얘기를 지금부터 실감나게 하고 있다. 남 달리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계생활이기에 그럴까? 잠자리에서 조용히 생각해 보면 너무도 많은 말들을 오늘 하룻동안도 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쓸데 있는 말에서부터 쓸데 없는 말들까지, 마음에 있지도 않은 말들에서 몸이 따르지도 못할 말들에 이르러가도 때로는 포근한 상대자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빌라도 같은 심판자가 되어 사람들을 단두대에 올린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신앙고백—"선생님은 그리스도 이십니다." (마르 8, 29)—우리 신앙의 최종 고백이다. 그러나 이 고백(告白)이 입술만으로 끝날 때—"밀습니다." "뚫어버립니다."라는 고백을 마르고 당도록 반복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말하기에 앞서 생각하고, 생각하기에 앞서 행동하라고 어느 성현이 일렀던가—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말로만 하는 신앙, 생각으로만 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 중 어느 신앙에 속할까?

신앙고백은 말과 생각을 넘어선 행동까지를 전제한다. 그것도 내 생활 언저리에서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를—그러기에 실천이 미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요(야고 2, 17), 입술로만 섬기는 믿음은(이사 29, 13) 피꼬리 같은 믿음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두 눈을 꼭감고 중얼거리면서도 생활에서는 내 뜻을 앞세우는 믿음, 가슴을 치며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애걸하면서도 형제에 대한 용서를 불허하는 믿음,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고 앞장서면서도 바벨탑을 도모하는 믿음—이렇게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이며, 그게 무슨 소용이랴(고린 13, 2), 천사의 말까지 동원하고 허가 온갖 제주를 다 부린다 해도 사랑의 행위가 미치지 못하는 믿음은 울리는 징과 요란한 굉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을(1고린 13, 1).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이"(마태 7, 21)에게 천국은 멀리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썩는 행위(요한 12, 24)를 뜻한다. 그것도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를, 석감을 받기 보다는 섬기는 발바닥이 되어야 한다.

복자성월과 함께 알말이 열매들이 익어가는 가을—또한 우리의 알찬 신앙도 익어가야 하지 않을까?

입술에 발린 피꼬리 신앙보다는 사랑이 담긴 알찬 신앙이—
 (교창 천주교회 주임신부)



아주머니, 참 고맙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는 흥정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다. 서로가 손해를 볼 수는 없는지라, 파는 쪽은 값을 높여 부르고 사는 쪽은 깎으려 든다. 그러다가 매매가 깨지기도 하고, 밀지고 판다는, 꾸밈을 듣기도 한다. 밀지면서도 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체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넘어서 또 한 번 속았구나고 씁쓸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저럴 개운치 않은 뒷맛을 없애자고 경찰제라는 것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보아도 에누리에 맛을 들인지라 조금은 재미가 없다. 마치 무인판매기에 동전을 집어넣고 단추를 눌러 물건을 사는 것 같아 딱딱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서로가 속이고 속이는 경기보다야는 정진위생학적으로 백번 나으리라. 그런데 여기에도 꿩꿩이 수는 또 있다. 연중행사로 해대는 바겐세일이라는 것 말이다. 경기의 숭통을 뜨기 위해서 필요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속이 편하지 못하게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물건을 사고는 그 값이 얼만지를 기억의 창고에서 내던져버린다. 값을 잘 모르면 속은 편하니까.

서울의 고속 터미널(그것도 경부선)에 가면 의류 도매 시장이 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비슷한 제품의 값이 제각각이다. 그런가 하면 에누리도 상당하다. 그런데 한 중년 부인은 아예 에누리를 거부하며 장사를 한다. 다른 가게보다 값을 처음부터 낮추어 부르고, 꼭 그 값을 받는다. 처음 생김 그 시장의 이미지를 위해서, 또 바른 거래를 위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그 부인에게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바로 그것이다. 참으로 감사롭게 느꼈다. 모든 상인이 다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다.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하던지 그렇게 살자. 정도를 걷는 일이 바로 순교정신이니까.

숲 정 이 산 책

당신이 진짜 값 있는 책이요

□ 200주년 준비 특집①

교황성하와 함께 신앙대회를

교황성하의 초청은 한국 천주교 200년만에 이루어지는 일로서, 그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피흘려 일군 이 땅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교황성하를 모시고 믿음의 잔치를 여는 우리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깊이 고려하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1. 교황성하의 초청 : 교황성하를 초청함에 있어서는 우선 초청에 대한 준비가 세밀히 이루어져야겠다. 또한 성하게서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떠나시는 동안에, 준비된 모든 것들이 착실히 진행되어야 할 것은 물론, 기쁨있는 의전과 알찬 행사의 진행, 그리고 깊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함이 요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준비로서는 첫째, 교황성하의 초청과 그에 따른 환영, 환송 절차의 교황성하에 대한 의견 경호 안전 등을 비롯하여 신앙대회 참여와 어려운 이웃을 찾아보시는 일 등의 계획을 상세하게 세워야 한다.

둘째로는, 200주년 각종 행사와도 관련지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치루어지도록 세심한 배려가 계획되어야 하겠다.

세째로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이 점검되고 재검되며 필요한 부분은 사전 예행연습을 실시하고 계획의 수정 보완이 따라야 한다.

네째로는, 이 모든 계획에 따른 준비물, 시설물 사용들에 대한 구입 또는 사용계약 등을 늦어도 84년 7월까지 완료되어야 함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별로 더욱 가까운 시일내에 완료되어야 할 것도 있을 것이다.

2. 200주년 기념 신앙대회 : 200주년 기념 신앙대회는 한국 천주교회내의 전 교구가 참여하며, 특히 교황성하를 모시고 서울, 대구, 광주, 3대교구에서 각각 잔치를 열 것인가? 기본 계획이 심의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일정과 장소의 변화에 따른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치밀하고 상세한 계획이 요구된다고 보겠다.

이에 따라 첫째로는, 전 준비단계로 각 교구별 신앙대회의 개최와 교회 전 역선단체별 신앙대회, 각 제층별 신앙대회 등이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하겠다.

둘째로는, 본 신앙대회에 대한 계획을 세워, 개최 장소별 일정별로 신앙대회에 대한 전례, 동원, 수송, 교통, 안전, 진행, 시설, 섭의 등을 상세하게 수립한다.

세째로는, 이 모든 계획이 교황성하 초청 전 계획과 유기체적으로 밀착되어야 하겠다.

네째로는, 이에 대한 검토와 재검 및 사전 예행 실시가 실행되어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다섯째로는, 이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시토록 관계 임원은 성실을 다하여 노력함으로써, 새로운 선교, 새로운 복음선포, 새로운 순교가 현양되도록 우리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숲정이 성당 준공에 즈음하여

속담에 “방죽을 파면 고기가 모인다”는 말이 있다. 하느님나라 건설에도 이 격언이 적중하리라는 신념이 생겨 실천에 옮겨본 것이 금일의 숲정이 성당 준공이다. 하느님 백성은 강변의 모래처럼 번성하기를 원한다. 반면에 정부는 복지사회방식고 가족계획 정책을 세워 출기를 원한다.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 가족계획을 장려하고 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과 같이 우선, 방죽 터를 잡아보았다. (425명, 약 1,300만원, 평당 32,000원) 이제는 돈 타령이다. 모(某)신자 집에 가 술타령부터 하다가 방죽타령을 했다. 마치 성령이 도우시는 듯 주(酒)타령이 주(主)타령으로 옮겨져 “몇일전 땅을 팔았는데요”하며 작은 성의나마 주님께 봉헌하고자 했다. 200만원! 이제 용기를 얻었다. 우선 사제관을 시작, 그러나 다목적으로 고기를 모으게 해야지. 결심(유치원, 피라미 고기-학부형 방죽-수경관-간접전교) 이왕이던 수녀원도 겸해야지. 머리 숙인 걸림 파노라마가 돌고 돈다. 소방죽(小池) 준공엔 1,550여만원의 고기 사료가 소요되자, 이제는 월척 대어 낚시로 진전되었다. 때마침 수녀님이 누갈다 부녀회를 조직 큰 방죽을 파자고 호소 27개월 100만원계를 조직, 그 중 15명이 큰 방죽 공사비로 봉헌했다. 이제 용기백배 힘을 얻었고, 때마침 성령운동이 일기 시작 각 반마다 다니면서 방죽공사 3개월 계획을 외치고, 봉헌정신을 촉진 하였다. 한편으로는 매일밤 41차 세계 성체대회 8mm 영화를 상영하였다. 그 후 파티마 성모상을 받마다 모시고 로사리오 기도를 하므로써 정신적 신앙의 골조가 완성되는 동시에 성전의 콘크리트 공사도 착착 진행되었다.

또한 추가금은 사순절을 기해 4지구 각 본당 신부님들께 방죽타령 700여만원 신입. 만 5년 후 준공을 보게되어 6대 교구장 박 정일 주교님의 주례로 축성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자들 성의로 본당 신부님 회갑도 겸하여 수련을 성황리에 마쳤다. 650명의 어장이 1,300명의 황금어장이 되었고, 200만원의 개인 봉헌이 1억 이상의 봉헌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 끈질기게 주님 사업에 협력하자!

1982. 8. 23.

숲정이성당 주임신부

관촌 공소 성전 건립에 함께 참여합니다.

자금난으로 중단상태에 놓여 있는 공소를 위해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SS) FASHION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신사복·영국모드 세계적인 코트의 명문 버킹검런던포그



간이복·성인용 (주) 유 율리안나 아동용·주니어 전주시 중안동 3가 96-2

위크엔드 샴화약국 옆 전화 ④ 4 4 5 1

□ 가을 관광

안내 상담

전 일 관광

전화 ⑥ 6 6 6 6 ~ 8

제주도·설악산·한려수도

□ 각종 신발 도산매

새마을신집

속녀화·아동화·특수화

남부시장 제일새마을금고 앞

김문식(베드루)



□ 평협 양 상열 회장 박사학위 취득

—축하 연회비 불우 교우들 위해 기탁—



교우 평신도 대표인 양 상열 회장이 8월 30일 전북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도 변호사협회 회장이기도 한 양 박사는 공사(公私)의 벽찬 직무중에서도 꾸준히 면학, 연구 끝에 금번 학위를 받게 된 것이다. 함께 축하드려 마지 않는다. (학위논문: 국제법에 있어서의 법의 일반원칙)

한편 양 회장은 평소의 신앙과 결양의 뜻으로 자체에서 밀려오는 축하 성원을 사양하고 본인의 축하연회비를 대신 불우한 교우들을 위해 써달라고 교우에 기탁해 왔다. “하느님께서 주신 재능과 영예, 다소나마 못가진 형제들과 나누고 싶다”면서……. 귀한 뜻에 아울러 감사와 더 깊은 성원을 보내드린다.

「모세 오경」을 마치고

김 파비올라

최근 한국 교회에는 활발한 성서운동이 일어나며 ‘성서의 생활화’를 부르짖고 있다. 근사하면서도, 거창하고, 애매하기만 하던 이 말을 이제 겨우 성서 40주간의 첫 편인 「모세 오경」을 마친 내가 감히 조금은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다면 오만일런지.

그저 신자니까, 남들과 얘기할 때 무식은 면하기 위해서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성서를 대할 때 일주일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했다. 그래서 도저히 혼자서는 읽을 수 없는 두꺼운 ‘베스트셀러’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겠다는 단순한 이유가 여러 매력 있는 성서모임 중 40주년을 택한 동기이다.

그런데 지금 그다지도 거깃말 투성이고, 잔인하고, 난잡스럽기만 하던 책이 우리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채워주는 하느님의 말씀, 「성서」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행운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처음엔 어려움이 있었다. 부담스런 매일의 정해진 성서봉독, 익숙치 못한 묵상과 생활을 연결시키기 힘들었던 점, 마음과 실천이 없는 머리만으로 참석했던 모임의 날 느낀 발표…….

그러던 우리 모임에서 「모세 오경」이 끝날 무렵엔 진정한 생활 체험과 성서의 씬을수록 달콤한 참맛을 알게된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 성서를 읽지 않는 하루는 피곤하기만 함을 알게 됐고, 역사성 사실성을 따지는 지식을 쌓기 위한 성서 읽기가 아니고, 핵심적 메시지를 묵상하고 생활화 하려고 애쓰고 있다. 하느님과 구약의 인물들과의 연극을 구경하는 관중이 아니라, 실제 주인공이 되어 이 순간, 나 자신의 일로 연결시켜 체험하는 고통과 뿌듯함, 다른 자매의 절절한 경험담에서 미처 듣지 못한 말씀을 깨닫는 희열. 이 모든 것을 지금도 막연히 성서 앞에서 머뭇거리는 많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알았으면 싶다.

혼자서 읽는 방법 보다는 좋은 안내자와 더 좋은 방법으로 읽는게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요심이 (475) 김병오

요새는 대낮에도 살인강도 들어오니~



불안해서 못살겠어요



그래서우리집은 가난하지만

경비원을 한 사람 채용했어요.



우리집도 한 끼 씩은 돈으로 경비원을 채용했지요



CSB 의료 효과의 선구자!

神秘食品, 土龍 W.B.S (※ 수도원 등록상표)

(간(肝), 위(胃), 암에 특효) 성모 土龍 쉐타 (형 베네딕도 수도원 제조)

- *이리: (명보여관 앞) ⑧253
- *군산: (팔마분수대 앞) ②4340
- *전주: (호남약국 2층) ⑤3257
- *정읍: (전화국 앞) 8058
- ◎ 본점: 전주성모병원3층 309호 전화 ⑧8091

김 미 카 엘

주단·포묵(혼수·회갑옷 감)도매상
각종 솜, 이불(밍크)카펫지 도매상

서울주단

전화 ③ 045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 회소식
독사뱀 물린 사람
백발백중(五代제)
전문치료 단시간 완쾌
연락처-전주시 전미동 1가 474번지
전당리 시내버스 종점
경미소 뒷집
전화 5-3544
송 준의(발라바)

금·은·보석·시계
결혼예물을 하시는 교우에게는 혼배반지를 기념으로 기증함

보석장

군산경찰서 전북은행 앞
전화 ⑥ 6603
한 철 재(비오)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여

전화 ② 262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도(덕배)



1. 전국 성직자 세미나 : 13일 오후 5시, 서울 상지회관
2. 전주지부 울뜨레아 : 15일 오후 7시 30분, 전동 천주교회
3. 팔마성당 증축 착공 : 15일부터
4. 4지구 주일학교 성가 합창 경연대회 : 26일 2시, 성심여고 강당
지정곡-어린이 미사책 237번, 아름다운 장미
5. 순절이 500호 기념집 :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각 분당 사무실에 신청하십시오.

(중앙)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점현
 보좌 신부 박인협
 사도 회장 김인협

- ※ 성경읽기 : 민수기 21장, 마르코 9장
1. 푸리아 : 오후 2시 강당
 2. 성모회 : 19일 공식미사 후
 3. 추석 합동 위령미사 봉헌 : 위령미사 봉헌 하실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미사시간-오전 6시, 오후 7시
10시 30분 미사 없고, 묘지에서 10시 30분 미사 있음
 4. 복자반 영세식 : 공식미사 중 영세식 있습니다
 5. 중학생 성지 순례 : 26일, 장소-미리내, 회비-3,500원
많이 참석하도록 부모님들께서 협력해 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 932,685원 교무금 : 670,000원

차주해설-김재식, 독서-①정진협②이명례(레지나)
 □ 지난주 봉헌금 : 352,71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명환
 사도 회장 황인규

1. 반장 릴레회 : 공식미사 후
 2. 성심 부녀회 : 13일<화> 오후 2시
 3. 81년도 영세자 특별교리 : 13일~17일까지
저녁 8시(회의실)
 4. 할머니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어머니 섬서모임 : 17일<금> 오후 2시(아파트)
 6. 예비자 교리시간 : 일반 성인-공식미사 후,
젊은이들-목요일 저녁 8시, 학생-토요일 오후 5시
 7. 푸리아 모임 : 오늘 오후 2시
 8. 다음주 전례 담당 : 독서-①박장춘 ②정형석
- 지난주 봉헌금 : 251,980원 교무금 : 151,000원

(노송동)

신부 ⑥0969
 주·사 ②7032
 주임 신부 김점원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교무금을 속히 완납합니다
 2. 푸리아 회합 : 오늘 오후 2시
 3. 예비자 교리 안내 : 일반-12일<일> 공식미사 후,
남자반-16일<목> 저녁미사 후,
학생반-18일<토> 오후 4시
 4. 성모회 릴레회 : 오늘 공식미사 후
 5. 금주의 성경 읽기 : 신약에 마르코복음 전체
 6. 성령 기도회 : 17일<금> 오후 2시~4시까지
 7. 쟈 모임 : 18일<토> 오후 5시,
젠미사-19일<일> 오전 9시
 8. 1일다방 개점 : 매주<일> 공식미사 후
 9. 대학생 모임 : 17일<금>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318,450원 교무금 : 163,000원

(순절이)

전화 ⑦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주·유 ③9567 사도 회장 김수걸

1. 구세주의 모후 푸리아 릴레회 : 오늘 오후 2시
 2. 주일학교 아동 성가 경연대회 : 26일 오후 2시 성심 학교 부모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져 매일 오후 5시 성가연습에 보내주세요
 3. 성모회 릴레회 : 19일 공식미사 후
 4. 가톨릭신문 : 구독하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세요(매주)
 5. 차주 전례 담당 : 해설-이철수,
독서-①이종욱 ②김창영, 기도-송용호 안내-이경희, 권영순, 서숙자, 정금순, 강상래, 김상욱
- 지난주 봉헌금 : 416,910원

(덕진)

전화 ②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안철열
 사도 회장 양상열

1. 예비자 교리 : 일요일 11시-수녀님 지도 성당
수요일 7시-보좌신부님 회의실
일요일 11시-채벨라벳다 2층 회의실
 2. 반석회 릴레회의 :
27세 이상 뜻있는 남자반, 1층 회의실
 3. 가정의 귀염둥이 주일학교로 : 2시교리, 3시미사
 4. 젊은이들의 모임 : 젊다고 생각되는 분
꼭 참석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5. 오늘은 애령주일입니다 :
선영들을 위하여 미사봉헌 바랍니다
 6. 성모회 릴레회의 : 다음주
 7. 선봉기 기증 : 이정자(글라라)씨
- 지난주 봉헌금 : 351,500원
 200주년 특별헌금 : 215,500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병업
 사무 ③3222 보좌 신부 박병준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자모회·장우회 : 공식미사 후
 2. 성화회·교미시움 : 다음주
 3. 치명자산 미사 : 13일~23일, 24일 오전 10시-주교
관 모시고 행사 있음 산미사동안 본당 아침미사없음
 4. 구역장·지도위원 모임 : 14일<화> 오후 8시 사제관
 5. 복지축일 영세자 특별교리 : 13일~25일 오후 8시
 6. 주일학교 성지순례 : 미리내, 자연농원 준비물-성서, 미사책, 기도서, 목주, 필기도구, 손가락, 물통
 7. 중·고생 예비자 교리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8. 중·고 교리교사 임원 개편 : 회장-주윤석 안토니오
부회장-전승욱, 교리-학생미사 후
 9. 전례부 차장 : 경양수(방지거) 수고 많이 해주셔요
 10. 다음주 전례 담당
아침미사 : 해설-이준영, 독서-①이덕수 ②이주영
공식미사 : 해설-서정욱, 독서-①신일균 ②이영태
저녁미사 : 해설-이주철, 독서-①이영철 ②변해석
- 지난주 봉헌금 : 598,570원

(복자)

전화 ⑤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우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자모회 : 13일<월> 어머니미사 후
3. 주일학교 : 매주일 오후 2시 교리, 3시 어린이미사
4. 반미사 및 성시간 : 14일<화>-다가1·2반 16일<목>-다가3반3가, 17일<금>-다가1가, 태평8반 완산반
18일<토>-중앙1·2반, 진복3반, 21일<화>-교사1·2·3반, 23일<목>-화산1·2반, 진복4반, 24일<금>-태평1·2·3반, 25일<토>-태평4·5반, 28일<화>-태평6·7반, 30일<목>-미복1·2·5반
반회장·반지도자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5. 학생미사 : 주일 오전 9시, 교리 9시 학생미사후
젠미사, 매 금요일 저녁 7시미사
6. 전례 : 금주해설-은마리아, 독서-①천진 ②송누시아

(파티마)

신부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수녀 ④4804 사도 회장 황희삼

1. 영세식 : 다음주 오후 2시, 대부모를 선정 2시까지
 2. 가톨릭시보·경향잡지 : 애독 바람 -성모회-
 3. 200주년 기념헌금 감사합니다
 4. 복지축일(26일) : 은퇴신부님들을 위한 주일로 했습니다
기도와 헌금으로 위로 드립니다
 5. 레지오의 적극 활동으로 많은 영세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전 신자가 레지오에 가입하여 민족 복음화에 노력합니다
 6. 예비자 특별교리 : 화·수·목-밤8시30분(본당신부)
 7. 영세자 면접 : 금요일 오후 2시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24,920원 교무금 : 244,000원